

LS전선, 전송속도 10Gb UTP케이블 개발

LS전선은 기존 ADSL 케이블보다 100배 이상 전송속도가 빠른 10G비트의 UTP(Un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개발했다고 9월7일 발표했다.

UTP케이블은 일반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LAN(Local Area Network) 케이블로, LS전선의 신제품은 500MHz 대역의 고주파수를 사용해 신호의 전송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일반 LAN 케이블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콤푼스프와 크론, 벨덴 등 3사만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광통신 기간망을 통한 정보가 가입자의 컴퓨터까지 전달될 때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어 수요가 급신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LS전선은 케이블의 구조와 길이 등에 따라 전송신호가 감소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자기술인 <스펙이서 기술>을 적용했다.

LS전선은 대용량의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UTP 케이블 개발을 계기로 국내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5/09/08>